논어 8편 태백 19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大哉，堯之爲君也！巍巍乎，唯天爲大，唯堯則之！蕩蕩乎，民無能名焉！巍巍乎，其有成功也！煥乎，其有文章！」

독음 · 자왈 대재 요지위군야 외외호 유천위대 유요칙지 탕탕호 민무능명언 외외호 기유성공야 환호 기유문장

쉬운 풀이(요약) · 요임금은 하늘을 본받아 큰 공을 이루었고, 백성이 말로 다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넓은 덕과 빛나는 문화를 갖췄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大 클 대 대 / 哉 비로소 재 재

堯 높을 요 요 / 之 갈 지 / 爲 할 위 / 君 임금 군

也 어조사 야 / 巍 높을 외 외 / 乎 어조사 호 / 唯 오직 유 유

天 하늘 천 천 / 則 곧 즉 / 蕩 넓고 클 탕 탕 / 民 백성 민 민

無 없을 무 무 / 能 능할 능 능 / 名 이름 명 명 / 焉 어찌 언 언

其 그 기 / 有 있을 유 / 成 이룰 성 성 / 功 공 공 공

煥 불꽃 환 환 / 文 무늬 문 문 / 章 문채 장 장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